

오래전 일이다. 그날 햇살이 퍼지기 전 이른 아침, 열세 살이던 나는 학교로 가고 있었다.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생답게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모도 반듯하게 썼다. 중학교 교복을 입으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던 시절이었다. 시골집에서 시내에 있는 학교까지 가려면 논밭 사이로 난 길을 한참 걸어야 했다. 내가 사는 동네에는 중·고등학생이 거의 없어 나는 혼자 등꽃길을 걷고 있었다. 아침 공기는 청량했고, 모내기를 마친 논에는 어린 모들이 뿌리를 내리며 조금씩 초록빛이 짙어지고 있었다.

얼마쯤을 걸었을까. 앞에는 네 갈래 길이 만나는 작은 교차 지점이 있었다. 그곳으로 향하는 길 오른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걸어오고 있었다. 우리는 같은 교차 지점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, 교차점에는 그분이 나보다 훨씬 가까웠다. 나는 무심코 걸음을 재촉했다.

그런데 내가 교차 지점에 가까워졌을 때, 그분은 몇 걸음 못 미친 곳에서 시선을 내린 채 멈춰 있었다. 얼핏 선 살쥔 되어 보였다.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걸음을 계속했다.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아주머니는 내가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.

‘왜 저기 멈춰 계신 거지?’ 지나쳐 몇 걸음을 더 옮기면서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. 뒤를 돌아보았다. 그제야 아주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떼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. 이른 아침 그 시골 길에는 나와 그 아주머니뿐이었다.

그날 그곳에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. 그렇다면 내가 마주한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. 나는 걸음을 옮기며 곰곰이 생각한 끝에 비로소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. 어린 내 귀에도 이미 익은 속설이 떠올랐다. ‘이른 아침 시간에 여자가 남자 앞을 가로지르거나 앞지르면 재수가 없다.’ 남성이 우선이던 시대에 남자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걸음에서 여자를 마주치는 일은 여자가 피해야 할 일이었다.

그 속설은 길 위에서만 머물지 않았다. 제사나 고사를 지낼 때에도, 장사를 시작하는 아침 첫 손님으로도, 고깃배를 타는 일에도, 삶의 무대 곳곳에서 여성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규율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.

그런 인식이 그 아주머니로부터 나이 어린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. 재수를 빼앗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, 주제를 모르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던 그분의 익숙한 몸짓이었을 것이다. 그것은 한 시대가 여성들에게 조용히 가르친 생존의 방식이었다.

순간 묘한 충격이 밀려왔다. 그저 어린 소년일 뿐인 내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오십에 가까워 보이는 아주머니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앞서 길을 질러가는 사람이라니. 어쩌면 그 당시 시골에서는 보기 드물던 중학생 교복도 남자가 우선이라는 오래된 믿음에 무게를 더했을까.

걸음을 옮기며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부끄러움 같은 감정에 사로잡혔다. 그 감정의 중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어머니였다. 집에서는 자식들이 따르고 의지하는 ‘어머니’였지만, 어머니는 늘 낮은 자리에 계셨다. 밥을 먹을 때면 늘 밥상의 끝자리였고 가장 늦게 수저를 들었다. 물을 가져오라면 물을 떠다 아버지에게 바쳐드렸고, 이유 없는 아버지의 역정에도 한 번도 큰 소리로 맞서지 못했다. ‘남존여비(男尊女卑)’, ‘남자는 하늘, 여자는 땅’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던 시대였다. ‘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’, ‘여자는 많이 배우면 팔자가 세진다’는 말이 그 시대의 언어였다. 그런 시대의 질서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을 낮추며 삶을 견뎌

내고 있었다.

그 아주머니에게서 어머니가 겹쳐 보였다. 그 순간 그 아주머니가 어느새 내 어머니가 되어, 그 길에서 나를 먼저 지나가게 하고 있었다. 혹시라도 누군가에게서 채수 없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.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뭉클거리며 덩어리지고 있었다. 눈을 크게 뜨니, 내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. 내 누이들이 그랬고, 여동생이 그랬으며, 앞으로도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.

어머니에 대한 애잔함이 깊은 연민으로 가슴속에 스며들었다. 배우지 못한 채 순박하게 살아온 누이들과 여동생에 대한 마음도 함께 밀려왔다.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. 저들을 어찌해야 할까. 열세 살 소년의 가슴속에서 생각의 회오리가 거세게 일고 있었다.

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나보다 아래에 두지 않는 일이다. 내가 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 또한 똑같이 존귀한 존재이다.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. 어머니와 누이, 세상의 여자들이 마주하는 세상을 보자. 그날 내 생각은 ‘여자’라는 이름 너머에서,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경계 너머에서, 서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귀함을 깨닫기에 이르렀다.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며 사람들과 나누어 왔다. 더디기는 했지만 세상도 조금씩 달라져 왔다.

세상은 저절로 바뀌지 않았다.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낸 사람들, 배우려는 여성들의 용기, 법과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, 그리고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조금씩 세상을 바꾸어 왔다. 어머니 세대가 견뎌 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변화도 가능했다. 아직 우리는 평등이 완성된 사회라기보다 평등을 향한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사회라고 할 것이다.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요리를 하고 나는 청소와 빨래, 설거지를 한다. 나들이를 할 때면 두 손을 꼭 잡고 걷는다. 오래전 그 길에서 시작된 생각이 우리 집의 일상이 되었다.

그때의 그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까지를 느끼고 사셨을까? 다시 이른 아침 그 시간 그 길에서 만나고 싶다. 그분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. 그분의 딸들이 더 이상 한 걸음 늦춰 서지 않고, 머뭇거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. 나는 나대로 마음 편히 가던 길을 가겠다.